

## 담임목사 리더십

### 제1강. 평신도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

#### 1. 성경적인 교회론

(1) 성경적인 교회론으로 돌아가라.

어떤 목회자가 목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듯 어떤 교회론을 가지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과 성격이 달라진다.

교회론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정신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시대마다 교회론이 달리 표현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교회론의 뼈대는 변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론의 거품을 빼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회관과,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관을 모델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수님의 교회관 (마 16장 13-20절)

- ① 신앙고백이 분명한 성도 공동체
- ②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
- ③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
- ④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전도 공동체

(3) 사도행전의 교회관

- 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 공동체
- ②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
- ③ 제자들을 세우는 양육친교 공동체
- ④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 공동체
- 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4) 서신서의 교회관

- ①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 ②성도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 ③교회는 은사 공동체이다.
- ④교회는 연합과 일치와 공동체이다.
- ⑤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곳이고, 성도인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곳이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서울 한복판으로 뛰어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라.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단숨에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이다.

\* 함께 생각하기 : 토론주제

- 1) 당신의 교회론을 정리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교인들에게 설명하듯 정리해 보십시오.
- 2) 현재 당신의 교회와 목회에는 당신의 교회론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2. 성경적인 교회론에 입각한 건강한 목회철학

(1) 목회철학은 왜 중요한가 ?

성경적인 교회론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회의 뼈대와 지침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리켜 목회철학이라고 한다. 교회론이 원리라면 목회철학은 방법이다. 성경적인 교회론은 다 같지만, 목회철학은 목회자의 부름에 따라, 성도의 부름에 따라 그리고 지역사회의 부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목회철학이 없이 목회 하는 것은 마치 설계도면 없이 마구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2) 건강한 목회철학을 구축하라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목회철학을 가진 교회를 말한다. 건강한 목회철학은 성경적인 교회론에서 나온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교회는 바로 건강한 목회철학을 가진 교회다.

### (3) 종교개혁과 목회철학의 변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만인 제사장이란 큰 타이틀을 걸고 오늘날의 교회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개신교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아직도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미완성의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최근 2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진리들을 서서히 회복하는 영적운동과 사역들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영적대각성, ▷선교의 열정회복, ▷전도사역, ▷기도사역, ▷제자도, ▷사회참여, ▷금홀사역, ▷Q.T와 일대일 사역, ▷가정사역, ▷내적치유와 상담사역, ▷경배와 찬양, ▷비전과 지도력, ▷성령사역 등이다.

이러한 모든 사역들은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 복음주의 학생단체나 선교단체 그리고 Para Church에서 발견된 보물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사역들은 초기에는 오히려 교회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외면되어 왔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거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에 의해 환영받고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열매가 바로 「헌신된 평신도 사역」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전통적인 교회와 달리 헌신된 평신도들에 의해 움직여 왔고 사역이 꽃을 피어왔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직업적인 성직자들보다 헌신된 평신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 (4) 목회철학의 새바람

이제 교회들은 이러한 생동적이고 자발적인 평신도들에 의해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은 교회 안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성직자들 중심의 사역」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점차적으로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론에 대한 일대 개혁이요 혁명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신도 중심 또는 선교나 사역중심의 교회」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통해 밝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처 발견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채 땅 속에 깊이 묻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교회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고 성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부동의 자리를 고수하면서부터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다.

### (5) 건강한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 즉 건강한 교회의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성경적인 교회론이다.
- 둘째, 성경적인 교회론에 기초한 목회철학이다.
- 셋째, 성령 충만한 예배와 찬양이다.
- 넷째, 충만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능력 있는 사역이다.
- 다섯째, 설교와 가르침이다.
- 여섯째, 양육체계이다.
- 일곱째,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열정이다.
- 여덟째, 미전도종족을 향해 땅 끝까지 달려 나가는 선교이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령사역이다.
- 둘째, 치유사역이다.
- 셋째, 영적전쟁사역이다.
- 넷째, 기도사역이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바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이며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직자 중심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함께 생각하기 : 토론주제

- 1) 당신의 목회철학을 정리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교인들에게 설명하듯 정리해 보십시오.
- 2) 현재 당신의 교회와 목회에는 당신의 목회철학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3 . 이상적인 교회 세우기

(1) 이상적인 교회란 지금도 존재한다.

이상적인 교회란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나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나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을 보라. 그들도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이 문제 있는 죄인에 불과하며 그들이 창출해내는 문화 역시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오순절 날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면 사도행전과 같은 동일한 사건은 지금도 일어 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러한 이상적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수많은 요소 중에서 핵심적인 세 요소를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 둘째,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 셋째,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 (2) 이상적인 교회의 세 요소

### ①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시대를 초월하여 어떤 형태의 교회이든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그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인가?’ 하는 문제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교회는 없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는 많다.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목회자는 없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목회자는 많다. 문제는 목회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잉태한 생명과 같다. 태아는 아무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는 출산한 아이와 같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 씨가 땅에 뿌려져 있을 때는 아무도 그 나무의 모습이나 생김새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교회는 땅에 솟아난 줄기와 나무와 같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나무이다. 그 나무는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성령으로 출산된 교회이다. 이것이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성령에 의해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 운행되고 성령에 의해 성장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한다. 교회론이나 목회철학, 예배나 사역, 설교나 양육, 전도나 선교 등 그 어느 하나 성령을 빗겨갈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지수는 곧 교회 성장지수가 된다.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이다. 성령에 의해 운영되는 목회란 첫째,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목회이며 둘째, 성령의 역사가 우선하는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목회를 뜻한다.

### ②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전문 목회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파나 교단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목회를 해왔다. 신학교와 그 교단의 교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신학교와 교리로 무장한 안수 받은 목회자를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인 성도들은 자기의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단순한 목회의 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다.

평신도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교회가 움직이고 세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게 된다.

교회는 평신도들의 은사가 유감없이 나타나고 사용되며, 그들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곳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다.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살게 하며, 그들의 전문성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 스스로가 교회가 되도록 비전을 주어야 한다.

### ③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이다. 그 목적이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동시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데 있다.

어떻게 전도 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된 사람을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나 전통이나 재정이나 제도나 건물이나 행사 등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교회에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이지, 교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전통이나 재정이나 건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이것들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에 모아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성도들의 마음이 사람이나 건물이나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맞추어질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 (3)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 ① 예배 공동체 (참된 예배자)

예배란 주님의 몸에 있는 심장과 같다. 심장이 건강하고 잘 뛰면 온 몸의 모세혈관과 세포들이 살아 움직인다. 아무리 장거리를 달린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활기가 넘친다.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주일 예배가 죽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도 예배가 형식적이고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며 교회 성장도 예배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예배에 있다.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설교, 향기 나는 예배, 찬양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예배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상적인 교회에는 삶으로(롬 12: 1),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요 4: 23, 24)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차고 넘친다. 이상적인 교회에서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참된 예배의 모습과 예배자의 모습을 쉽게 만나게 된다 (요12장).

‘이런 예배가 얼마만큼 넘쳐나느냐’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를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

이상적인 교회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예배와 구도자를 위한 예배가 있다. 모든 예배는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다.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가 믿는 자들에게만 집중되었을 때 불신자들은 소외되고 구경꾼이 되기 쉽다. 믿는 자들만의 예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서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적인 교회에서는 특별히 예수를 믿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구도자 예배가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그것은 성령의 사건이요 말씀의 사건이다. 따라서 참된 예배 가운데 거하는 이상적인 교회에는 모든 사역이 흘러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이상적인 교회란 바로 예배공동체를 말한다.

## ② 성령 공동체(성령 충만한 사역자)

사도행전 2장 1~4절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기록한 말씀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이다.

오순절날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기쁨부으심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락방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뛰쳐나왔다.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 나라 말은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도 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서로 보고했다.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배고프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 떠날 줄을 몰랐다. 사도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외쳤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야요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한마디를 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을 통해 탄생된 교회의 시작이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은 지난 2천년 동안 교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 새롭게 더 크고 광범위하게 역사하셨다. 교회는 바로 성령사건이라고 정의해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렇듯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져서 성령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성령으로 열매맺는 성령공동체이다.

③ 선교 공동체(능력 있는 전도자)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으로 부터 받은 천국열쇠를 소유하고 있다. 천국열쇠는 지상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과 특권이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크고도 확실한 축복이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영혼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의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라는 뜻이다.

이상적인 교회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전도요 선교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천국열쇠의 비밀은 무한하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위대일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

온누리교회는 주님의 관점에서 시작한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 「2천/1만 비전」이란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다. 주후 2005년까지 2천명의 선교사를 10/40창의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하며 1만명의 헌신자를 북한을 포함 이 땅의 모든 지경에 파송한다는 비전이다. 모든 온누리 성도들을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운다는 꿈이다.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공동체이다.

\* 함께 생각하기 : 토론주제

- 1) 당신은 이상적인 교회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 예배 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외에 이상적인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평신도 목회란 무엇인가?

(1) 새로운 목회론

평신도 목회란 목회의 축을 목회자 중심에서 성도(평신도)중심으로 이동한 목회패턴이요, 동시에 피라미트 형태의 상하 관계에서 수평 형태의 목회패턴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전통적인 교회의 틀을 부정하고 깨뜨리는 것이 아니다. 단지 축과 틀이 바뀌어진 것뿐이다.

평신도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목회의 한 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전지전능한 슈퍼스타가 아니다. 그저 목회에 필요한 기능일 뿐이다.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의 지체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코치와 같고 성도들은 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코치와 운동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한 팀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주체 세력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역할이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세움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다. 여기에 성도(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필요하며 동시에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 (2)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움직이는 교회

평신도 목회란 새로운 목회패턴이 결코 목회자의 위상을 흔들거나 낮아지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는 이는 발상법의 차이일 뿐이다.

목회자는 계속 설교하며 심방하며 행정 하는 등 목회를 한다. 목회자는 목회 일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았고 그 일에 정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에 전문 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 단지 목회자가 그 목회를 마치 자기의 전유물처럼 독점하여 모든 성도를 자신의 일꾼이나 하수인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의 시녀가 아니라 자신의 은사와 헌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처럼 움직이는 교회이다.

## (3) 지역교회는 신학교처럼 평신도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모든 신학교육의 문제는 전문신학의 훈련은 있으나 그 신학이 살아있는 목회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학과정을 통하여 배출된 목회자는 현재와 같은 목회자의 패턴을 벗어 날 수 없다. 평신도 목회란 처음부터 생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평신도를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의 지역교회는 평신도들의 사역을 위해 신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교회의 신학교육은 전문 목사직이나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주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평신도 목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평신도의 올바른 신학적인 터전을 닦아주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학교처럼 평신도를 양육하는 일은 바로 평신도 목회를 꿈꾸는 지역교회의 몫이

된다.

(4) 평신도 사역 훈련원을 세워라.

올바른 신학적인 터전이 마련된 평신도들은 사역자로 세워야 한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을 위하여 지역교회는 평신도 사역 훈련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신도 사역원의 과정은 평신도들이 가진 전문성과 은사를 극대화시켜 주며 사역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여 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역원은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몇몇 교회가 연합하여 만들어 질 수 가 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소 신학교는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사역 훈련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5) 평신도 사역의 지평을 열어라.

평신도 사역을 위하여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 사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직무분석을 통해 교회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전 성도를 대상한 은사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모든 성도들이 적재적소에 그들의 열정과 은사에 가장 알맞는 사역에 배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신도 사역은 인위적인 구조 보다 자연스러운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 교회에게 주신 독특하고 특별한 사역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하며 그 목회자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역의 장을 열어 줄 때 사역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된다.

\* 함께 생각하기: 토론주제

1. 전통적인 교회가 자기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2.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프로그램을 제시하라.